

횡령·배임...전남 수협 도덕적 해이 심각

6년간 회원조합서 45건 180억·배임 11건 120억 발생

■전남서 발생한 횡령·배임

-고흥군수협 4급 선수금 횡령
-불법스포츠타이트 계좌에 13억 송금
-신안군수협 임직원 10여명 유관기관
에 2억 넘는 명절 선물
-지난해 2억 7천만원 대출금 횡령
-완도소안수협 8400만원 횡령
-영광군수협 계마출장소 6800만원 횡령
-완도금일수협 면세유 부정공급·횡령
-전남동부수협 허위 대출
-고흥군수협 중도매인 미수금 횡령
-해남군수협 부당담보 불법 대출·횡령
-완도금일수협 6억4000만원 배임

#1 고흥군수협 모 지점에서 근무하는 A(41)씨는 1년여 동안 12억9200만원의 조합돈을 빼돌렸다. A씨는 유류대금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2 신안군수협은 조합장 이하 임직원 10여명이 유관기관 등에 2억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보내 형사고발됐다.

전남지역 수협에서 횡령 및 배임 등 금융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와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사

고 액수는 각각 180억원, 120억원에 달한다. 횡령사건 45건 중 전담에서 발생한 건수가 11건(24%)이나 된다.

올해 고흥군수협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 불법사이트인 스포츠타이트 계좌에 약 13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신안군수협은 민원인들이 수협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경비집행을 검찰에 고발, 수사당국이 해당 수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등에 보낸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이 형사고발됐다. 신안군수협은 지난해에도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완도소안수협(8400만원), 영광군수협 계마출장소(6800만원) 등지에서 사무실내 보관 중인 현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완도금일수협은 면세유 부정공급 및 횡령(1500만원), 전남동부수협은 허위 대출

(9900만원), 고흥군수협은 중도매인 미수금 횡령(1억원), 해남군수협은 부당담보 불법 대출 및 횡령(2억1900만원) 등 횡령 사고도 잇따랐다.

또 지난해 완도금일수협에서는 6억 4000만원 규모의 배임(허위임대계약서에 의한 대출취급) 사건이 발생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년간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산인 조합원의 금융재산이 조합 직원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을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 대표 교통복지 ‘100원 택시’ 장관상

전남도의 대표 교통복지 모델인 ‘100원 택시’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분야 장관상을 수상한다.

전남도는 201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100원 택시’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100원 택시’는 ‘마을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 주민·택시회사·행정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

다. 또 단순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성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시 단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중앙정부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실시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별 5000만 원씩 총 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2개 시·군의 ‘100원 택시’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키로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이용 합리화, 경관·미관 개선 등의 본래 취지를 상실, 도심 자투리땅이나 외곽 임야·전답 등 미개발지의 고층·고밀개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26일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 공동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단 가운데 하나로 해당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세계획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경수 교수(광주대)가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을, 오

세규 교수(전남대)가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는 영상강 등 하천변에 대한 도시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상준 교수(동신대)는 ‘순환도로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이명규 교수(광주대), 조선상 교수(동신대), 류영국 대표(지오시티), 정우권 상무(원우기술개발) 등 관련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동안 제기된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개선,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초청강좌를 벌였다.

시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12월까지 지침(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재만 시 도시계획과장은 “세미나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학계,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민주광장서

세계 음식·문화 축제

29일 ‘광주국제교류의 날’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제23회 광주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 카메룬, 서아프리카 등지의 외국인과 시민이 참여한다. 올해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복지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계음식체험전’ ▲세계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전’ ▲스페인클럽 등 내·외국인의 친목 동아리와 외국인 자원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커뮤니티’ ▲시민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등으로 꾸러졌다.

또 행사 전날인 28일 오후에는 엠마 이슴빙가보(Emma Isumbingabo) 주한 르완다 대사가 국제교류센터에서 ‘1994년 집단대학살 23년 후 르완다’를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한다.

‘광주국제교류의 날’ 행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문화를 알리고 빠른 정착을 돕고자 1995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문의 062-226-27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25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17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봉선·양동건어물·말바우시장 우수 전통시장 선정

시, 오늘~29일 강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부스 운영

광주 봉선·양동건어물·말바우 등 전통시장이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전국 17개 시·도 후원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7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광주 봉선시장, 양동건어물시장, 말바우시장 등 3개 시장이 참가해 4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봉선시장 박상길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개인 부문) 표창, 말바우시장·양동건어물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단체 부문) 표창, 광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자체 부문)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봉선시장 박상길 회장은 모든 회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온누리상품권 홍보와 유통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말

바우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은 상인회와 소속 상인간 소통, 협력 확대로 시장에 지역특색을 일혀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 전통시장전시관에 말바우시장(참기름, 한과 등)과 봉선시장(마늘, 홍합, 멸치가루 등)을 참여시켜 지역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장터에는 무등시장(모다맥튀)이, 청년상인관에는 무등시장(천연콩비누, 석고방황제, 아로마향수 등)이 참여한 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게단위 kg,130년만에 개정될 듯

국제연구팀 ‘양자역학’ 상수 이용 정확도 높여

질량을 재는 단위인 ‘킬로그램(kg)’의 정의가 130여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구팀이 ‘양자역학’의 상수(常數)를 이용해 킬로그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양자역학 상수를 이용해 만든 기준은 기존 kg의 오차범위 1억분의 5를 1억분의 2.4 이하로 축소, 정밀도를 한층 높였다. NHK에 따르면,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를 비롯한 5개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양자역학 상수를 이용해 kg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좋은 1억3천
- 화순 동백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암홀게이트북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상가주택 임대 빌2, 가설, 가계10평 2천만원에 68만원
-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26㎡ 주택 130㎡ 수리해아할 1억5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외전합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측주택 60여평 편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양계장 허가부지 정총을 15000여㎡ 축사하기도 있음 6억9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암군 신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창 대신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북측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북구 본충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델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급 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